

人事動靜

8. 18 ~ 9. 20

과학기술부

2007-9-7

▷ 원자력정책과 기술서기관 전기수

한국전력공사

2007-8-30

해외사업본부장 김진식



원산 소식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강연

제149차 원자력계 월례조찬강연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미국원자력학회-한국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49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9월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원자력계 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국내 원자력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원자력산업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김종신 사장은 “최근 폐막한 APEC에서 정상들은 시드니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에너지 직접도를 25% 높이는 등의 내용”이라며 “이는 원자력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의 정상들이 공개석상에서 원자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지도급 환경운동가인 제임스 러브록도 원자력 확대만이 지구 온난화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수원도 고리 1호기 계속운전과 중·저준위 방폐장의 성공적 건설 해외 원전 사업 진출 등의 현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단합과 결집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을 만드는데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NEWS